

I. 통상현안정보

■ 印度와 FTA 서둘러야 할 때

-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Win-Win 게임
- 자동차부품, 전자부품 중심으로 추가 수출증대 기대
- BRICs 의 한 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한-인도간 FTA 가 체결이 될 경우, 거대한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KOTRA(www.kotra.or.kr, 사장 : 吳盈敎)는 최근 인도정부의 FTA 추진의지, 양국간 보완적인 교역구조, 인도 진출 한국투자기업의 성공신화 및 인도에서 활동중인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, 인도시장에서 양국간 FTA 체결이 이루어지면 매년 꾸준히 신장되는 인도 내수증가를 우리의 수출증대로 직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인도와의 FTA 체결이 이루어지면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 인도의 기본관세율 20%에 부가관세를 합치면 39.2% 수준으로 세계 평균 관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.
- 또한 양국간 교역구조를 보면, 한국은 첨단기술제품, 현지생산용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인도에 수출하고 있으며,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원면, 철강, 화학제품 등 원재료 위주로 되어 있음.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 FTA 체결로 인해 Win-Win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- 한편 인도는 세계 4 위의 경제대국으로 내수시장이 매년 10%이상 확대되고 있어 인도 시장 공략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.
- 금년 5 월 집권한 의회주의당 중심의 UPA 연합정부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이전 정권이 체결한 FTA 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나아가 주요 교역국과 FTA 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.
- 2000 년도에 체결된 스리랑카와의 FTA 이후 양국간 교역이 3 배 이상 신장하였으며, 인도시장 우회진출을 노리고 스리랑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. 또한 2003 년에 FTA 를 체결한 태국과는 금년 9 월 1 일부터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해당하는 84 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를 개시, 일본자동차 생산기업은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민한 대처를 보이고 있음.
- 이와는 별도로 新정부는 아세안과는 금년 11 월부터 FTA 를 발효시킬 예정임. 또한 인도수출 2 위국인 중국과는 양국정상회담에서 FTA 를 추진키로 합의, 양국 공동연구그룹이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준비중임. 이외에도 남아시아지역협력체(SAARC), 칠레, MEROSUR, 남아공과는 체결을 검토 중에 있음.

< 인도의 FTA 체결현황 >

구분	국가명	발효시기	비고
기체결	스리랑카	2000.3.1	교역투자 급신장
	태 국	2004.9.1	84 개 조기수확품목 발효
기체결 발효예정	아세안	2004.11.1	포괄적 경제협력
협상중	싱가폴	미 정	
	중 국	미 정	공동연구, 방법/분야 연구중
검토중	남아공,칠레	미 정	
	MERCOSUR	미 정	

-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잠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는 점인데, 인도-중국간 FTA 가 체결되면 중국제품의 인도시장잠식은 더욱 가속화되어 수년 이내 인도시장점유율 1 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.
- 현재 한국은 인도의 외국인 투자규모에서 5 위, 인도 총수입 중 7 위를 기록하고 있으며, 인도의 주요 경제협력국 중의 하나임. FTA 가 체결되는 경우 우선 현지투자기업 생산용 전자 및 자동차부품의 원가절감 효과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. 또한 2003 년도에 단일 품목으로 무려 740 백만불의 수출을 보인 휴대전화기를 비롯 특수직물, 선박, 기계류 등의 급격한 수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.
-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원면, 철강, 화학제품 등 주로 1 차산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인도에 투자한 한국 대기업 3 개사가 매년 40%씩 매출을 신장하는 성공신화를 이제 한국상품전체로 파급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, 세계 4 위의 구매력을 가진 전략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.

(문의처 : 몸바이무역관 윤효춘 hcyoon@kotra.or.kr)